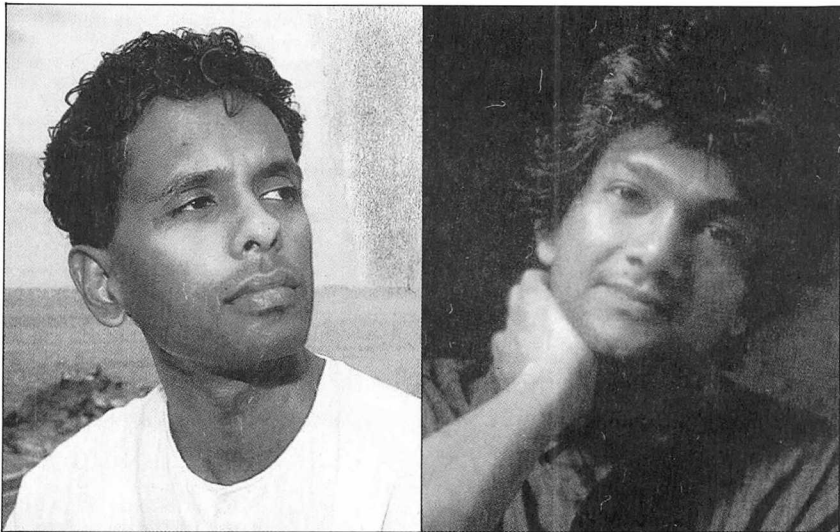


# 새롭게 떠오르는 스리랑카 문학

탁월한 문학성 지닌 신진작가 속속 등장, 세계각국서 호평



세계 각지의 독자들로부터 호응받고 있는 스리랑카의 신진작가들. 쉬암 셀바두라이(왼쪽)와 로메쉬 구네세케라.

스리랑카가 세계 문학계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의 주변부쯤으로 치부됐던 스리랑카에서 최근 탁월한 문학성을 지닌 신진작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세계 각지의 독자들로부터 호응받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가는 로메쉬 구네세케라, 칼 물러, 쉬암 셀바두라이 등. 이들의 작품은 모두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해변, 햇빛 등 자연 풍광과 인종 종교분쟁, 정치적 혼란으로 점철된 잔인한 현실세계를 대비시킨 점이 특징이다.

로메쉬 구네세케라는 지난해 「산호초」로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부커상에 후보작으로 오르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일본계 영국작가 카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들」의 남방판으로, 트리톤이란 하인 소년의 눈에 비친 스리랑카 상류층과 인종 분규 등 사회적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구네세케라는 「몽크피쉬문(Monkfish Moon)」이란 작품에서도 역사에 휘말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을 다룬 적이 있다.

칼 물러는 영국-인도 혼혈작가. 3부작 「잼과일나무」 「아카다 아카」 「옛날 옛적에」에서 자신이 성장과정을 통해 직접 경험한 혼혈 결혼 및 소수 특권층 문제 등을 솔직하게 다뤄 인기를 끌었다.

쉬암 셀바두라이의 「웃기는 소년」은 타밀 분리주의자와 스리랑카인 간의 갈등을 이례적으로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바람둥이지만 순진한 구석도 있는 아르지란 남자가 타밀 분리주의자 청년을 좋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정치

적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내용이다. 셀바두라이는 스리랑카 부자들의 허영에 넘친 생활을 꼬집은 장편소설 「콜롬보」를 탈고한 데 이어, 서사시 「사람의 아들」과 20년대를 배경으로 한 3부작 대하소설을 집필중이다.

타임지는 최근 기사에서 “스리랑카 작가들이 과연 인도의 루시디, 비크람세스 등을 능가할 것인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 중국계 캐나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

캐나다의 중국계 여성작가 드니즈 총이 자전 소설 「침의 자식들」(바이킹)을 출간,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가 자신의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소재로 해 현실감과 호소력이 뛰어나다는 지적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메이 잉은 1924년 17세 나이에 중국을 떠나 캐나다 밴쿠버로 시집온다. 중국에 남편의 본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침신세에 놓인다. 메이 잉은 빈털털이 남편을 위해 찻집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떼어내 본처에게 보낸다. 두 딸까지 본처에게 빼앗기지만 불만 한번 표시하지 않으며 살아오던 그는 셋째딸을 낳아 자기 손으로 기르게 되지만 고단한 삶에 지쳐 사랑을 쏟지 못한다. 소설은 셋째딸의 딸이 할머니로부터 중국에 있는 이모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직접 찾아나선 끝에 결국 친척들과 재회하는 데서 마무리된다.

어머니를 통해 가족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작가는 이 소설을 4년에 걸쳐 집필했다. 80년



캐나다의 중국계 여성작가 드니즈 총.

대 초 트뤼도 수상 of 경제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드니즈 총은 8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이모와 사촌들은 물론 본처 식구들도 만났다. 첫 상봉의 기쁨이 지나간 후 그는 친척들과 의사소통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어장벽도 문제였지만 침의 후손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실감한 것.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비록 첩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 온갖 고생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소설을 통해 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 여성을 비하하는 중국의 전통문화 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 美 추리소설의 베스트셀러 행진

미국 추리범죄소설 전문작가 제임스 패터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1월 출간한 「소녀들에게 키스를」이 1주일만에 무려 32만권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 작품은 최근 파라마운트 영화사로 1백만달러에 판권이 팔려 작가 패터슨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소녀들에게 키스를」은 알레스 크로스란 미치광이가 연쇄 유아살해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살인장면이 끔찍하고 너무 사실적이어서 비판도 적지 않지만 작가 자신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를 괴롭지 최근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모비 딕」을 쓰는 작가는 아니다. 대중작가(page turner)의 왕이 되고 싶을 뿐이다.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책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말해주길 원한다”라고 지적했다.

패터슨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본래 직업은 광고인이다. J. 월터 톰슨/노스 아메리카 광고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매일 7시 30분에 출근, 1천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보살피고 있다. 책은 퇴근후 저녁시간에 주로 식당 테이블에 앉아 쓴다.

작가로 성공했으면서도 광고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나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일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광고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뉴욕 맨하탄 북쪽 도시 뉴버에서 출생, 성장한 패터슨은 맨하탄 컬리지 영문과 재학중 정신병원 야간근무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품의 소재를 얻곤했다. 특히 당시 입원중이었던 시인 로버트 로웰과 문학이야기를 하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 71년 J. 월터 톰슨사에 카피라이터로 입사, 90년 회장직에 취임했다. 문필가로 데뷔한 것은 92년. 미국인의 성, 종교, 돈에 대한 심리를 조사분석한 「미국인이 진실을 말한 날」이 데뷔작이다. 약 2년전 「거미와 함께 오다」(Along Came a Spider)란 범죄소설을 발표해 특이한 내용과 필력으로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오애리>

##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무리 잘 알려진 동화일지라도 삽화가의 이름까지 함께 기억하는 독자는 드물다. 지난 달 초까지 약 보름정도의 기간 동안 독일 바트 퀴르몬트 성(Bad Pyrmont Schöb)의 미술관에서는 네명의 삽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일반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자우어랜더 출판사와의 공동작업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각 독일과 스위스 출신 삽화가 네명의 그림은 물론 완성 전의 스케치와 구상도 등도 일반에게 공개했다.

바트 퀴르몬트 성 미술관의 총책임자이자 이번 전시를 주관한 디터 알프터(Dieter alf-

일본 증권계 전문가가 한국 증권계에 보내는 시그널!

# 증권시장 리엔지니어링

이제 증권시장도 리엔지니어링이다!



왜 일본의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가?  
왜 미국 증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급변하는 세계 증권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한 확실한 대안은 무엇인가?  
일본 증권계의 만성화된 회피와 인위주의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에 일대 혁명적인 열풍을 일으킨 바로 그 책 - 부동신 실명제에 이어 OECD 기인, 주가 지수 선물 거래 도입, 금융 자산에 대한 종합 과세, 채권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둔 국내 증권계에 보내는 일본 경제 전문가의 증권 시장 개조론!

▽ 三原淳雄·今井 激·공저/김국우·김수 / 신국판/320쪽/값 7,000원

## 국립증권 베스트셀러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식 투자의 비결<br>구영한 저/국립증권연구소 옮김/값 7,000원 | 2 주식소프트<br>임후권·김현 공저/값 7,000원 | 3 주식을 사는 법 파는 법<br>이재철 편저/값 7,000원 | 4 증권 교실 100면 100답<br>복영보 편저/값 7,000원 | 5 증권 투자 길잡이<br>임후권 저/값 7,000원 | 6 증권 기사 읽는 법<br>국립증권연구소 편/값 6,000원 | 7 주가와 경제<br>나가타 에이주 저/임후권 옮김/값 6,000원 | 8 알기쉬운 주식 명언 격언집<br>국립증권연구소 편/값 6,000원 | 9 알기쉬운 주식 이야기 입문<br>구영한 저/값 7,000원 | 10 주식 투자 노하우<br>임후권 저/값 6,000원 | 11 펀드 매니저의 주식 투자 전략(1994년 발행)<br>자문회사 펀드매니저 편/값 5,000원 | 12 증권 투자 전략<br>전철 저/크리우관 2 인쇄/값 12,000원 | 13 알기쉬운 주가 차트 100% 활용법<br>임후권 저/값 6,000원 | 14 실전 주가 차트 입문<br>국립증권연구소 편/값 6,000원 | 15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br>니콜라스 다비스 저/국립증권연구소 옮김/값 7,000원 | 16 알기쉬운 주가 지수 선물 거래 입문<br>오시학·임후권 공저/값 6,000원 | 17 최신 주식 투자 입문<br>임후권 저/값 8,000원 | 18 증권 시장 리엔지니어링<br>미하야시노·이마미야모시 저/김국우 김수 옮김/값 7,000원 | 19 1995 증권 다이어리<br>김현 저/값 8,000원 | 20 가격받건 우량종목 123 (1995년 발행)<br>보림투자저문 편/값 7,000원 |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날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의 비결,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 약이되는 한국의 산야초

야생식물학자 김태정 저/값 38,000원



자연에서 발견하는 직상의 건강 비법!

선생님의 책을 읽고 증풍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무릎에  
생강즙을 섞어 드시게 하였더니 일주일 후에는 다소 불편하나마  
결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태성 (남, 32세, 지역영) -

발 밑에 밟고 다니는 풀 한 포기에도 것처럼 뛰어난 약효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 조광욱 (남, 22세, 대학생) -

최신 호화 컬러판/908쪽/케이스 양장본  
1,000여종의 산야초와 병명별 민간요법까지 상세히 소개.

##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신비의 민간 자연요법 시리즈

- |                                     |  |                                  |                               |  |                                    |  |                                     |   |  |  |                                       |
|-------------------------------------|--|----------------------------------|-------------------------------|--|------------------------------------|--|-------------------------------------|---|--|--|---------------------------------------|
| 1 기적의 매실요법<br>松本龍興 저/유준태 역/값 6,000원 | 2 신비의 솔잎치료법<br>上原美鈴 저/유태중 김수 옮김/값 7,000원 | 3 신비의 마늘요법<br>기준성 김수 옮김/값 7,000원 | 4 이재회의 포도요법<br>이재희 저/값 8,000원 | 5 몸에 좋은 산야초 치료법<br>송효정 편저/원색도감/값 18,000원 | 6 몸에 좋은 감지요법<br>안덕균 김수 옮김/값 6,000원 | 7 알로에로 병을 고친 사람들<br>홍준화 김수 옮김/값 7,000원 | 8 신선초로 병을 고친 사람들<br>구영한 편저/값 7,000원 | 9 약이 되는 한국의 산야초<br>김태정 저/원색도감/값 38,000원 | 10 병을 물리치는 신비한 생야초 녹즙요법<br>기준성 편저/값 6,000원 | 11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요로요법<br>류상재 김수 옮김/값 6,000원 | 12 신비한 당근즙 건강요법<br>이정림 김수 옮김/값 7,000원 |
|-------------------------------------|--|----------------------------------|-------------------------------|--|------------------------------------|--|-------------------------------------|---|--|--|---------------------------------------|

비즈니스 및 증권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국립증권연구소와  
문학, 건강, 레저스포츠 등을  
출판하는 국립미디어는 각 분야의  
다양한 독자들을 위해 좋은 책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TEL · 253-5098, 237-6646~7 FAX · 237-4524



ubel, wenn ich das Wort nur höre.  
Tango! das ist die feine Lebensart! Die Handharmonika mit d  
glänzenden Knöpfen und dazu eine helle Mondnacht am Meer  
strand! Versteht ihr, was ich meine?"

Jörg Müller, Hans-Christian-Andersen-Preisträger: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상' 수상자인 외르크 뮐러의 「동물들의 반란」.

ter)씨도 실력있는 삽화가들이 동화의 유명세 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이른바 상업성을 겸한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이 미술관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스위스 출신의 삽화가이자 무대화가로 활동중인 외르크 뮐러(Jörg Müller)의 전시회를 준비했다가 "이들도 역시 동화의 또 다른 주역임을 증명"하고자 다른 세명의 작품까지 함께 기획하게 됐다. 그럼으로써 각 삽화가들의 나무랄데 없는 독립된 예술세계까지 돋보였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10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상(Hans-Christian-Andersen-Preis)을 수상한 외르크 뮐러는 이번 전시회 때 프랑크푸르트와 하노버, 취리히 등 자신이 살았던 도시의 내부를 개관할 수 있는 그림 「풍경의 변화」, 「도시의 변화된 모습」 등을 이년여의 몰두 끝에 선보였다. 뮐러의 삽화는 대부분 해피엔딩을 맺지 못하는 현대동화와 주로 어우러진다. 광고 모델에 싫증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잠시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다 새로운 텔레비전시리즈의 주인공 섭외로 결국 굴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화 「동물들의 반란」(Aufstand der Tiere)에서도 주인공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 서늘한 느낌의 다소 거친 톤을 사용하는 뮐러의 그림에는 3차원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

「소피의 세계」 표지 그림으로도 유명한 삽

화가이자 화가인 크빈트 부호홀츠(Quint Buchholz)의 동화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에서는 집과 건물들이 직접 손으로 건설해 놓은것 마냥 일꾼들의 땀냄새가 묻어난다. 판매부수만으로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면, 부호홀츠의 「잘 자거라, 아기곰아」(Schlaf gut, kleiner Bär)는 미술관 옆에 위치한 쿠퍼몬트 서점에서 가장 성공한 베스트셀러로 손꼽힌다.

꼬마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독일 출신의 삽화가 디터 비스뮐러(Dieter Wiesmüller)의 「페르닉스, 꼬마 사우리아의 모험」(Permix, Die Abenteuer eines Kleinen Sauriers im Urzeitwald)은 열은 안개로 뒤덮인 듯한 원시시대의 모습을 독특한 혼합 채색 기술로 표현하여 과학적인 사실성을 결부시켰다.

프란츠 홀러(Franz Holer)의 동화 「원시림 책상」(Der Urwaldschreibtisch)은 삽화가 디터 라이엔베르거(Dieter Leuenberyer)에게 기지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다. 음산한 분위기의 도시가 아마존의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열대우림으로 바뀌고 사무실의 마호가니 책상이 생명력을 부여받아 대자연속의 우람한 나무로 되돌아가는 모습은 가히 인상적이다. 낯선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불어넣고 꿈을 꿀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삽화가의 임무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문성원>